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제자됨의 길

2020년도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빼앗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정상적인 미사 참례와 본당 활동이 아련하고 그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연중 제13주일 복음(마태 10,37-42)에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네 복음서 가운데 특히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서는 독자들이 스승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걷도록 초대합니다. 복음서 끝부분에 따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라는 스승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주일 복음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마태 10,37)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37절에서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동사와는 다릅니다. 37절의 표현은 마태오 복음서에서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거나 멸시적인 어조(마태 6,5; 23,6)로 사

용되기까지 합니다. 이는 가족들 사이의 유대와 연대, 사랑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하느님 사랑과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걸으며, 가족 사랑을 핑계로 하느님 사랑을 소홀히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0,39)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명사는 육체적 생명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전인적 생명,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생명을 뜻합니다. 게다가 ‘목숨을 얻다’라는 표현에서 ‘얻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발견하다’라는 일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인격체로서의 전인적 생명을 스승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고 잃을 각오마저 아끼지 않는 제자들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절망과 피로감, 실망과 무기력함으로 점철된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상대화되고 부질없이 느껴지는 이 시기에, 스승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이 시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신앙인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청합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0,39)”**

요당리성지의 손 조각상이 십자가를 받들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십자가의 목숨은 이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은 이를 실천한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김대한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